

온달과 실�크로드



강사: **전대완** 교수

서울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국방성 왕립군사학교에서 러시아어학 석사학위를,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. 모스크바, 블라디보스톡, 우크라이나,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 언어권에서 외교관으로 오래 근무했으며, 현재는 계명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. 주요 저서로는 『뉴욕이야기』, 『방콕이야기』, 『극동이야기』, 『실 무러시아어』, 『우즈베키스탄을 아시나요』 등이 있다.

실�크로드의 한반도 및 일본열도까지의 확장에 대해서 중국 역사학자들은 좀 소극적이다. 하지만 제2차세계대전 이후 실�크로드의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, 이제는 유럽의 로마와 한반도의 경주까지 연결되는 실�크로드가 일반화되었다. 우리의 역사 속에서 ‘온달’은 아직도 “평양 공주의 남편” 바보로 존재하고 있다. 하지만 실�크로드의 대상(Caravan) 소그드인들의 증계무역(특히 담비가죽)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의 고대사, 그중에도 고구려 온달과 마주치는 역사적 접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. 우리 고대사의 외연이 엄청 넓혀지는 것이다.

중앙아시아의 로마, 사마르칸트에는 ‘아프로시압 궁성’이 있다. 그 궁성 가운데, 우리의 ‘경회루’ 같은 장소(650~670 사이 건립된 것으로 추정)에 ‘고구려 사신들’이 그려진 사신도가 한쪽 벽면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. 1400년만에 고구려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현신(現身)한 것이다. 과연 고구려 사신들일까? 어떻게 그토록 먼 거리까지 갔을까? 무엇 때문에? 의문이 꼬리를 잇는데, 어느 누구 속 시원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. 하지만 한국인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라면, 당연히 그 역사적 설명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? 이 고구려 사신들과 온달을 실�크로드의 밧줄로 한번 엮어보려고 한다. 흥미 넘치는 역사도전이 아닐 수 없다!